
5분 자유발언

- 고성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확대 -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대가면 지역구 김향숙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고성군을 비롯한 농촌 지역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판로 축소, 고령화와
고물가,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겹치며
소농가의 살림살이와 군민 모두의 먹거리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농업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고성군의 지속가능한 미래와도 깊이 연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로컬푸드 활성화와 직매장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69농가가 286개 품목의 농산물을 등록·판매하고 있고, 2024년 약 2억 5천7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로컬푸드 판매처는 축협 하나로마트와 농협 파머스마켓 두 곳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군민과 농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해온 사례들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임시 직매장 개장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11억 원, 농가 환원 10억 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완주군 역시 소농과 고령농을 중심으로
다품목 소량생산 체계를 조직해,
출하 농가 40%가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또한 나주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해 월 4천만 원 넘는 매출과,
누적 100억 원 돌파 등 공공급식 시장 판로와
농가 소득 다각화라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민과 소비자,
지역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성군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4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의 생산부터 품질관리,
가공·유통까지 신뢰받는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생산 단계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법을 도입하고, 토양·용수·잔류농약 등 생산 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체계화하고, 농가 정보·생산시기·유통이력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와 공공급식 등 다양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성군은 이미 먹거리 지원센터를 통해 일부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으나, 이제는 공급 품목을 더 다양화하고, 공공기관 구내식당·복지시설 등으로 연계해 더 많은 군민이 식탁에서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강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관·공공기관 등 유희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체험 공간, 소규모 카페 등 다양한 분산형 매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읍·면 단위 임시 직매장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 수요와 효과를 미리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2025년 5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5년 단기 지원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생산자·소비자·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은 단순히 농산물만 파는 곳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쌓고, 군민 누구나 함께 어울리며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유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와 직매장 확대는
고성군에 더 안전한 먹거리와 더 튼튼한 일자리,

그리고 살기좋은 지역경제 순환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